

#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검증<sup>†</sup>

최 정 문<sup>‡</sup>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관련성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남녀 389명(남자 138명, 여자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매개하는 경로구조모형이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진로미결정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현적 자기애는 진로미결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 상관을 자기개념 명료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 자기개념 명료성과 진로미결정은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부분매개로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에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에 더욱 취약해지고 자기에 대해 안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이에 따라 자기개념 명료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진로미결정,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개념 명료성

<sup>†</sup> 본 연구는 정남운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 최정문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정문,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Tel: 02-2164-4270, E-mail:riners0803@hanmail.net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생계유지 수단 이상이며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나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문명의 발달과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직업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직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입시와 진학위주의 진로지도에 치중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대학교에 들어가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로미결정은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뿐 아니라 우유부단함, 가치관의 혼란을 포함하는 복잡한 심리적 상태로써 불안,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김은영, 2007; 박선희, 박현주, 2009). 실제로 여러 대학들이 실시한 학교생활 실태조사에서도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및 직업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아람, 최정문, 2014; 김민정, 김봉환, 2007). 전 생애 관점에서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 Super(1951)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자아개념이 직업적 자아개념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발달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진로미결정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김봉환, 김계현, 1995; Fuqua, Blum, & Hartman, 1988; Osipow, Carney, & Barak, 1976). 193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성격특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한자와 결정하지 못한자로 나누어 그 차이를 밝히는데 관심을 두었다

(Holland & Holland, 1977). 이후 연구자들은 진로미결정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며 (Larson, Heppner, Ham, & Dugan, 1988) 개인특성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uqua et al., 1988). 최근 연구들은 진로미결정자가 일시적이고 발달과정에서 직업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만성적이고 여러 영역에서 결정의 어려움이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Saka, Noa, & Gati, 2007; Callanan & Greenhaus, 1992; Germeijs & De-Boeck, 2002; Kelly & Lee, 2002; Santos, 2001).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들은 성격특성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다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Amir & Gati, 2006; Gati et al., 2007; Saka, Gati, & Kelly, 2008; Santos, 2001)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박정희, 이은희, 2008; Hartman, Fuqua, & Blum, 1985; Brown & Brooks, 1991).

최근 내현적 자기에가 진로미결정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성격특성으로 연구되고 있다(김기명, 2010; 김은석, 2006; 양민아, 김봉환, 2014; 이춘희, 2007). 자기에를 인간의 심리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전면에 등장시킨 사람은 Freud였다. Freud(1905)는 '자기에적'(narcissistic)이라는 용어를 자신의 초기 심리성적발달이론에 포함시켰으며 대상으로 이르기 전에 일차적 자기에와 대상애 시기 이후에 대상의 거절로 인한 이차적 자기에로 구분하였다. Freud(1914)는 자기에를 건강한 대상애로 발달하지 못한 이차적 자기에의 특징들인 과대화, 과대망상, 이상화, 완벽추구, 자존감 손상에 대한 두려움, 특권의식, 타인을 자신

과 분리시키지 못한 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경향 등으로 설명하였다.

자기애적 특성은 다양한 하위 유형들로 연구되고 있으나 많은 임상가들이 현상적 관찰에 따라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고 있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한수정, 1999; Akhtar & Thomson, 1982; Cooper & Michels, 1981; Cooper & Ronningstam, 1992; Gabbard, 1989; Masterson, 1981; Wink, 1991a). 이러한 두 가지 자기애 유형은 웅대하지만 취약한 자기개념이라는 공통적인 핵심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양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외현적 자기애는 거대한 자기표상 및 자기과시의 경향이 두드러지며 외현적이고 외향화된 측면이 강조되는데, 이는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V-TR; DSM-IV-TR; APA, 2000)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징에 부합한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신감이나 자기가치감이 낮고 자기상이 불안정해 타인의 비판이나 반응에 민감하며 부정적 평가에 취약하다(정남운, 2001). 이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위축되어 있고, 수줍어하며,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의 비판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낀다(권석만, 한수정, 1999; 이항순, 정남운, 2012; Akhtar & Thomson, 1982; Kohut, 1977). Cooper (2000)는 두 유형의 자기애가 내적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에 대한 방어형태가 달라 서로 다른 현상학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타인들의 찬사를 바라고 웅대성을

드러내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가능한 비판과 비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비난의 단서가 없는지 타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확인을 피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한다(박세란 외, 2005).

선행연구에서도 진로미결정자들은 높은 수준의 만성적 불안과 좌절감, 그리고 낮은 자아정체감과 자기 확신 및 자아존중감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Fuqua & Hartman, 1983), 자기애는 이러한 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쉽게 우울해지며 사소한 스트레스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성격특성을 가지며 자신감이나 자기 가치감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자보다는 내현적 자기애자가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들을 상담 장면에서 보다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은석(2006)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언희(2009)는 내현적 자기애의 부적응적 특성 그 자체가 진로미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불안이 진로미결정의 하위변인인 '우유부단'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진로미결정의 상관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어떤 심리적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하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정서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 변인의 영향들만큼이나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성격적 특성과 인지적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

Super(1981)는 직업발달이론에서 직업적 자기개념을 한 사람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원동력이라고 보고 자기개념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직업적 정체감이나 자기 정체감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Cohen, Chartrand, & Jowdy, 1995; Gianakos, 1999; Santos, 2001).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불명확한 자아정체감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있다(김은진, 천성문, 2001; 박정희, 이은희, 2008; Lopez & Scott, 1987). Saka, Gati 및 Kelly(2007)는 진로미결정 및 우유부단한 성격과 관련되는 변인들 및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성격적 요인들을 비판적 시간, 불안, 자기개념 및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Gati 등은 자기개념 및 정체감 군집이 개인의 보다 심층적이고 만성적인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진로미결정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진로미결정에 자아정체감이 영향을 미치며 자기개념 명료성이 진로미결정에 부적영향을 미친다(김나래, 김대원, 2013)는 경험적인 연구들이 있다.

자기개념 명료성(Self-concept clarity)은 자기에 대해 갖고 있는 평가와 정보, 즉 자기개념의 내용들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정의되며,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정도를 나타낸다(Campbell & Fehr, 1990). 자기개념 명료성은 자기존중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는데, 김아름(2009)

은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유기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는 반면,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중립적인 자기평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비밀관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개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외 선행 연구에서는 Berglas와 Jones(1978)가 자신이 부정적 특질을 갖고 있거나 긍정적 특질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확실성의 지속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존중감이 낮은 경우,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경험은 불일치할 수 있고 이는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자기개념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Danu, Joanne, & Juliana, 2008).

내현적 자기애자는 취약한 자기구조와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는 거대화된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는데(강선희, 정남운, 2002) 이들의 거대화된 자기개념은 대부분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실현화되기 힘든 자기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보통사람들보다 더 타인의 피드백에 의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과대화된 자기상과 피드백은 거의 일치하기 어려우므로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추론은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사회적 피드백의 타당성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현적 자기애자들이 자존감이 높고 자기 평가가 긍정적인 반면,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기 개념이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박세란 외, 2005; 강선희, 정남운, 2002; 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 Rose, 2002)들이 있다. 내현적 자기애자는 비판이나 평가에 민감하여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확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이

들은 평가받는 상황을 회피하며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상황을 선호하게 된다. 불명확한 자기개념, 즉 낮은 수준의 자기개념 명료성을 가진 개인은 스스로 유능하지 않고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며, 분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자기 가치감에 너무 위협적이기 때문에 모호한 자기개념을 발달시키게 될 수 있다(Danu et al., 2008).

한편, 사회적 장면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고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낄 경우 자기개념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Baumgardener, 1990; Campbell, Chew, & Scatchley, 1991; Campbell & Fehr, 199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에 의해 자신이 관찰되거나 평가받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되어지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Marks & Gelder, 1996). 조용래(1999)는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이 같은 불안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짐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불확실한 자기개념을 지속시키려고 한다(Leary, 1999).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인상을 형성하려는 성향이 강하면서도(Nezlek & Leary, 2002) 성공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며 걱정과 불안이 높다는 특성들(Leitenberg, 1990)은 내현적 자기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현적 자기에자들은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여 쉽게 상처를 받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Wink, 1991b), 상처입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매우 예민하고 평가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서 비판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낀다(Akhtar & Thomson, 1982; Kohut, 1977). Akhtar와 Thomson(1982)은 임상적 관찰을 통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집단이 비판에 대한 민감성이 높음을 발견하였으며,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경험적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고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이 있으며 겉으로는 우울, 불안하고 과민하다고 하였다. 박세란 등(2005)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주식(2006)은 내현적 자기에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자들은 외부의 평가에 대해 민감하고 취약한 자존감을 거대한 자기상으로 방어하기 위해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고 회피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혼란스럽고 모순되는 정보를 많이 가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미결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개념 명료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매개할 것이다.

## 방 법

###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44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425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389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38명(35.5%), 여자가 251명(64.5%), 학년별로는 1학년 79명(20.0%), 2학년 65명(16.7%), 3학년 112명(28.8%), 4학년 133명(34.2%)이었다.

### 측정도구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으로 목표불안정 9문항,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9문항, 착취/자기중심성 9문항, 과민/취약성 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 8문항의 5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불안정’ 척도는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목표설정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척도로 내현적 자기애의 본질적 특성이라기보다 내현적 자기애적 특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진로미결정 척도와 개념이 중첩된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목표불안정’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92였으며, 각 하위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81, 착취/자기중심성 .80, 과민/취약성 .83, 소심/자신감 부족 .81로 나타났다.

**직업결정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 본 연구에서는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국내대학생 표집을 이용하여 한국 문화에 적합하게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 부족(6문항), 자기명확성 부족(4문항), 우유부단한 성격(4문항), 필요성 인식 부족(4문항), 외적장애(4문항)의 5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2문항으로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산출한 내적 합치도는 전체가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전체가 .88, 직업정보 부족 .81, 자기명확성 부족 .77, 우유부단한 성격 .78, 필요성 인식 부족 .80, 외적장애 .65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Watson과 Friend(1969)가 30문항으로 개발하였던 것을 Leary(1983)가 전체 척도점수와 .50 이상의 상관이 있는 문항 12개를 뽑아서 단축형으로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이며 단축형과 원래 척도와의 상관은 .96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정윤(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 Campbell 등(1996)이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 내적 일관성, 시간적 안정성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이수현(2005)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예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종종 서로 상충될 때가 있다,’,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등과 같다. Campbell 등(199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SPSS 22.0을 사용하여 389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AMOS 22.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chi^2$ 검증과 적합도 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적합도의 기준은 CFI, TLI가 .90이상, RMSEA가 .08 이하를 적용하였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전체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분석은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으로서,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389)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인 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명료성, 진로미결정의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개념 명료성, 진로미결정 간에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68, p<.01$ )과 진로미결정( $r=.56,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개념 명료성( $r=-.62, p<.01$ )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46, p<.01$ )과 진로미결정( $r=-.53, p<.01$ )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진로미

표 1. 주요변인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N=389)

	1	2	3	4	M	SD
1. 내현적자기애	-				2.84	0.44
2. 자기개념명료성	-.62**				3.13	0.55
3. 평가두려움	.68**	-.46**			3.18	0.60
4. 진로미결정	.56**	-.53**	.34**	-	2.39	0.52

\* $p<.05$ , \*\* $p<.01$ .

결정( $r=.34,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

을 적절히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 방법을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단일요인 척도이므로 문항묶음(item parceling)으로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Russell,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38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인정욕구/거대자기	-														
2. 착취/자기중심성	.32**	-													
3. 과민/취약성	.44**	.53**	-												
4. 소심/자신감부족	.29**	.34**	.61**	-											
5. 자기명료성1	-.30**	-.43**	-.51**	-.41**	-										
6. 자기명료성2	-.32**	-.38**	-.53**	-.37**	.60**	-									
7. 자기명료성3	-.31**	-.44**	-.53**	-.38**	.64**	.69**	-								
8. 평가두려움1	.55**	.12**	.51**	.46**	-.27**	-.36**	-.37**	-							
9. 평가두려움2	.52**	.32**	.62**	.46**	-.30**	-.40**	-.38**	.80**	-						
10. 평가두려움3	.44**	.42**	.66**	.45**	-.32**	-.42**	-.42**	.61**	.72**	-					
11. 직업정보부족	.17*	.31**	.33**	.30**	-.41**	-.27**	-.31**	.15**	.16**	.18**	-				
12. 명확성부족	.23**	.29**	.38**	.35**	-.51**	-.32**	-.32**	.23**	.21**	.22**	.67**	-			
13. 우유부단	.32**	.33**	.54**	.62**	-.43**	-.36**	-.37**	.48**	.42**	.43**	.43**	.48**	-		
14. 필요성부족	.09	.32**	.27**	.25**	-.38**	-.23**	-.34**	.13*	.15**	.17**	.42**	.41**	.31**	-	
15. 외적장애	.16*	.26**	.32**	.23**	-.31**	-.19**	-.24**	.10*	.10*	.15**	.36**	.33**	.33**	.31**	-
<i>M</i>	3.15	2.48	2.84	2.89	3.27	3.02	3.12	3.30	3.18	2.99	2.75	2.67	2.75	1.95	1.85
<i>SD</i>	0.61	0.59	0.59	0.56	0.62	0.65	0.63	0.70	0.63	0.70	0.76	0.77	0.73	0.70	0.64
왜도	-0.19	0.47	0.09	0.07	-0.48	-0.20	-0.18	-0.30	-0.20	0.12	-0.02	0.20	0.10	0.52	0.45
첨도	-0.05	-0.01	0.08	0.02	-0.22	0.04	0.35	-0.03	-0.03	-0.30	-0.61	-0.25	-0.23	-0.04	-0.19

\* $p<.05$ , \*\* $p<.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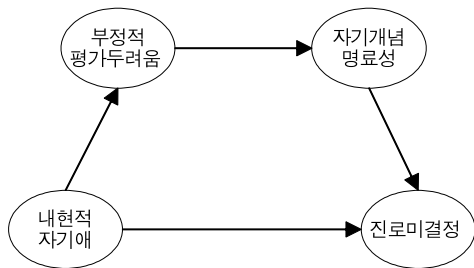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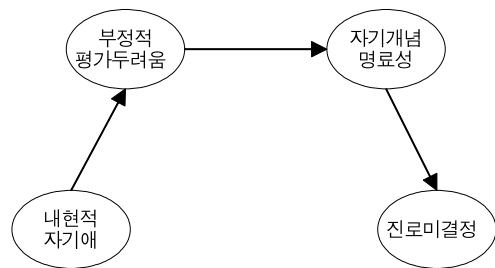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Kahn, Spoth, & Altmaier, 1998).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인  $\chi^2$ 이 321.782 (df=84,  $p<.001$ ), CFI가 .901, TLI가 .894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MSEA=.104로 적합하지 않아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수정지수(MI)사용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지수가 적용된 오차항들은 서로 상관이 높고 개념상 유사하거나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차항들로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소심/자신감 부족’이 오차변수와 진로미결정 하위요인인 ‘우유부단’의 오차변수 ( $r=.62$   $p<.01$ ),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과민/취약성’의 오차변수와 평가두려움 하위요인의 오차변수 간( $r=.66$   $p<.01$ )에 공분산을 설정하도록 나타났다. 모형 수정 전과 후의 경로계수와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경로계수는  $p<.05$ 에서 유의미하였고, 적합도는  $\chi^2$ 이 232.595 (df=80,  $p<.001$ ), CFI=.949, TLI=.933, RMSEA=.070 {90%

CI=.061~.074} 로 향상되었다. 최종 측정변인 간의 상관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사이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이론적 가설을 바탕으로 세워진 연구모형은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 사이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부분매개하는 경로이며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제외한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은 각각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홍세희(2000)가 제안한 매개모형의 검증절차에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chi^2$	df	$\Delta\chi^2$	TLI	CFI	RMSEA
연구모형	232.595	80		.933	.949	.070(.060*~.081*)
경쟁모형	240.628	81	8.033	.931	.947	.071(.061*~.082*)

\* $p<.01$ .

표 4. 최종 모형의 추정결과

	경로	B	$\beta$	S.E.	C.R.
내현적 자기애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390	0.831	.129	10.776**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개념 명료성	-.727	-.886	.067	-10.887**
자기개념 명료성	→ 진로미결정	-.467	-.370	.112	-4.171**
내현적 자기애	→ 진로미결정	.434	.250	.150	2.893*

\* $p<.01$ ,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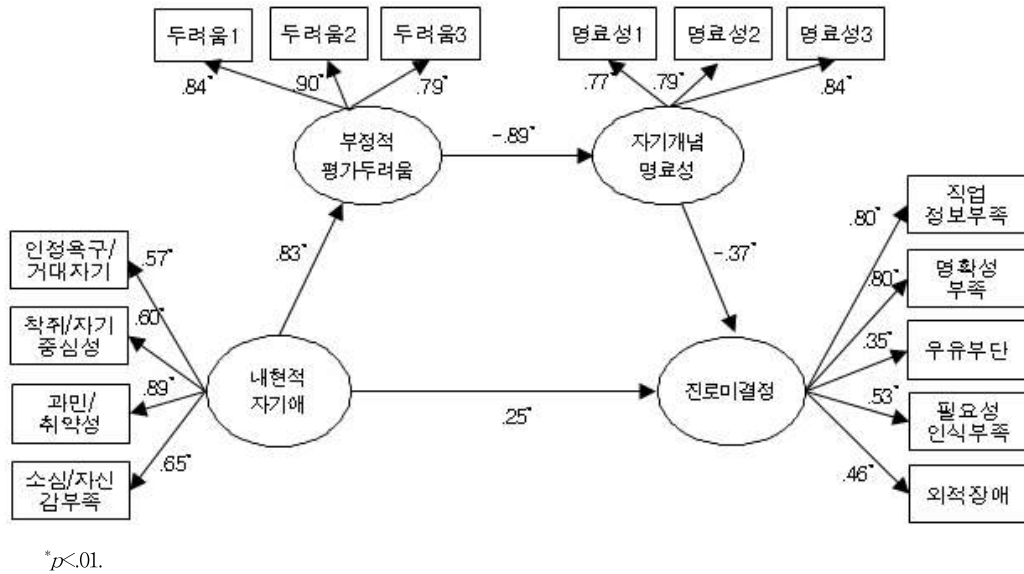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의 각 변인 간 표준화 경로계수

표 5. 최종 모형의 추정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내현적 자기에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831**	-	.83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개념 명료성	-.886**	-	-.886**
자기개념 명료성	→ 진로미결정	-.370**	-	-.370**
내현적 자기에	→ 진로미결정	.250*	.273**	.523**

\* $p < .05$ , \*\* $p < .01$ .

따르면, 먼저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매개모형의 적합도와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매개모형이 지지되는 경우 완전매개모형과의 경쟁을 통해 완전매개효과인지 부분매개효과인지 결정하게 된다. 이때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은 상호 포함관계에 있는 모형이므로,  $\chi^2$  차이 검증을 통해 모형비교를 실시하게 된다(홍세희 2000).  $\chi^2$  차이를  $\chi^2$  분포표( $\alpha=0.05$ )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자유도가 큰 모형을 선택한다.  $\chi^2$  차이검증

을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은 적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적합도가 더 양호한 가설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TLI=.933, CFI=.949, RMSEA=.070으로 양호하여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부분매개 모형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최종 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4에,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에서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도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5이었으며,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83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개념 명료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기개념 명료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직접효과의 크기는 .89와 .37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 검증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을 거쳐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경로( $B = .273$ , 95% Bias-corrected CI = .119 ~ .44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고, 자기개념 명료성에 부적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된다는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특성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개념 명료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관계하는 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

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 하위요인과 내현적 자기애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유부단한 성격’이 내현적 자기애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이연옥, 2015; 이춘희, 2007).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유부단함은 결정을 내리기를 어려워하는 것이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자기개념이 모호하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며 자존감이 낮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은 진로미결정의 ‘필요성인식 부족’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자만심과 특권 의식으로 인해 직업선택에 대한 필요성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김은식, 2006; 하정희 외, 2009)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이 졸업 후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진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사회적 지위를 얻음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자기가치감을 확인받기 위해 직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집단이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해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Akhtar와 Thomson (1982)의 연구와, 내현적 자기애가 내부의 웅대한 자기상을 보호하고자 타인의 평가를 민감하게 경청하고 그에 맞추어 부정적 평가를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으며 기존의 연구들(김나예, 2012; 원주식, 2006; 박세란 등, 2005; Kohut, 197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평가 예민성이 높고 자기감이 취약한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실패나 좌절 경험 및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평가에 예민한 개인은 스스로 자기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며 자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고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 개념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Baumgardner, 1990; Campbell et al., 1991; Campbell & Fehr, 1990)와 일치한다. 특히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거대한 자기상에 의존하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좌절과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불확실한 자기개념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수록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자존감 및 자아정체감과 상관이 높다. 또한 진로미결정이 불명확한 자아정체감, 불안,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Lopez & Schott, 1987; Speich, 1987)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자기개념 명료성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

인들과 고르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자기명확성 부족'과 '우유부단한 성격'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을수록 자신의 흥미나 적성, 원하는 것과 자신의 장점 및 단점을 잘 알지 못하며 따라서 직업 선택 및 매사에 있어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중 우유부단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이 매개한다는 연구가설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고 회피함으로써 자기에 대해 더욱 명확한 신념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지 못하고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됨을 나타낸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다는 선행연구들(Stuck & Sporer; 2002,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존중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Kocovski & Endler, 200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김나예, 이기학(2012)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자기개념이 모호한 사람들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정보를 구하지 않고 불확실성의 지속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Flett, Vredenburg, Pliner, & Krames, 1987; Berglas & Jones, 1978)

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완전매개하지 않고 부분매개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인을 제외하고도 내현적 자기애 특성 자체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취약한 자기개념, 열등감, 타인에 대한 시기와 이상화, 낮은 자존감 및 낮은 자기효능감 등의 내현적 자기애 특성들은 직업을 준비하는 것 자체에 자신감을 잃거나 직업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해 진로결정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종합해 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부정적 평가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 회피하고자 하며, 낮은 자존감과 모호한 자기감을 유지함으로써 자기개념 명료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이르게 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고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로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자아정체감을 확인하여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Gati, Krausz, & Osipow, 1996)이며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담자의 개인적 그리고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진로미결정과 상관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변인들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만성적인 성격 문제 중 하나인 내현적 자기애에는 다양한 부정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진 만큼 하위요인들 가운데 어떤 특성들이 진로미결정에 특히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이 높은 성격 변인들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진로미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진로미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둘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진로상담이나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타인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으나 자신의 능력에 불안을 경험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해 두려움이 크며,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므로 진로결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취업불안과 자기 가치감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에서 진로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진로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함을 이해하게 하고, 타인들과의 객관적인 비교와 평가를 통해 자기에 대해 현실적이고 명확한 개념이 자리 잡도록 도울 수 있다. 단, 평가에 민감하고 취약한 내현적 자기에자들을 상담할 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통해 현실적이고 건강한 자기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해 고려할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대상이 특정지역의 대학생으로 한정지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연구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정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 대인관계에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주관적 판단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문항에 영향을 받아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완전매개하지 않고 부분매개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인을 제외하고도 내현적 자기에 특성 자체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취약한 자기개념, 열등감, 과도한 외적 보상이나 인정욕구, 낮은 자존감 및 낮은 자기효능감 등의 내현적 자기에 특성들은 직업을 준비하는 것 자체에 자신감을 잃거나 직업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해 진로결정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

외의 다른 변인들과 함께 어떠한 경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권석만, 한수정 (1999). 자기에적 성격지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기병 (2010). 자기에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따른 진로미결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나래, 김대원 (2013). 포스터 발표: 11 분과 학교; 자기개념 명확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장 주도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13(1), 424-424.
- 김나예 (2012).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에가 부정적 평가두려움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지*, 20(1), 13-25.
- 김봉환, 김계현 (1995).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20-43.
- 김은석 (2006).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은영 (2007). 남녀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79-1100.
-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 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 4(1), 147-162.
-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 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67-81.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박정희, 이은희. (2008).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미결정: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03-123.
- 양민아, 김봉환 (201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2), 27-43.
- 원주식 (2006).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좌절경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아람, 최정문 (2014).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상담호소문제분석, *학생생활상담소 연구지*, 33, 127-146.
- 이연옥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춘희 (2007).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항순, 정남운 (2012). 내현적 자기애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3(2), 199-216.
- 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언희 (2009).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와 독립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683-70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text revision (DSM-IV-TR, 2000)*.
- Amir, T., & Gati, I. (2006). Face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4, 483-503.
- Baumgardner, A. H. (1990). To know oneself is to like oneself: Self-certainty and self-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62-1072.
- Berglas, S., & Jones, E. E. (1978). Control of attributions about the self through self-handicapping strategies: The appeal of alcohol and the role of underachiev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200-206.
- Brown, D., & Brooks, L. (1991). *Career counseling techniques*. Boston: Allyn & Bacon.
- Callanan, G. A., & Greenhaus, J. H. (1992).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An examination of multiple sub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12-231.
- Campbell, J. D., Chew, B., & Scratchley, L. S. (1991).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59, 473-505.
- Campbell, J. D., & Fehr, B. (1990). Self-esteem and perceptions of conveyed impressions: Is negative affectivity associated with greater real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22-133.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358-368.
- Cohen, C. R., Chartrand, J. M., & Jowdy, D. P. (1995).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indecision subtypes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40.
- Cooper, A. M., & Michels, R. (1981).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8, 128-129.
- Cooper, A. M., & Ronningstam, E. (199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11, 80-97.
-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 (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53-74). London: Jason Aronson.
- Flett, G. L., Vredenburg, K., Pliner, P., & Krames, L. (1987). Depression and social comparison information-seek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2, 473-484.
- Freud, S. (1953).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Standard Edition*, 7, (pp. 172-201).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05)
- Freud, S. (1914). *Remembering, repeating and working-through*. *Standard edition*, 12 (pp. 145-156). London: Hogarth Press.
- Fuqua, D. R., Blum,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4-373.
- Fuqua, D. R., & Hartman, B. W. (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27-29.
- Gabbard, G. O. (1989). Two subtyp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3, 527-532.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ermeijs, V., & De Boeck, P. (2002). A measurement scale for indecis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career indecision and other types of indecis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8, 113-122.
- Hartman, B. W., Fuqua, D. R., Blum, C. R., & Hartman, P. T. (1985). A study of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in identifying longitudinal patter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202-209.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Kelly, K. R., & Lee, W. C. (2002). Mapping the domain of career decision problem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302-326.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 Kocovski, N. L., & Endler, N. S. (2000). Social anxiety, self-regulation,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347-358.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Leary, M. R. (1999). Making sense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8, 32-35.
- Leitenberg, H. (1990).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New York: Plenum Press.
- Lopez, F. G., & Andrews, S. (1987). Career



- indecis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5*, 304-307.
- Marks, I. M., & Gelder, M. G. (1996). Different ages of onset in varieties of phobia.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3*, 218-221.
- Masterson, J. F. (1981). *The narcissistic and borderline conditions: An integrated development approach*. New York: Brunner/Mazel.
- Nezlek, J. B., & Leary, M. R. (2002).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presentational motives in daily 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211-223.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L., Yanico, B. J., & Koschier, M. (1976). *Career Decision Scale* (rev.).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Russe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aka, N., & Gati, I. (2007).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persistent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340-358.
-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403-424.
- Santos, P. J. (2001). Predictors of generalized indecision among Portuguese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 381-39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tucke,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 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 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 509-532.
- Super, D. E. (1981). A developmental theory: Implementing a self-concept, in D. H. Montross & C. J. Shinkman (Eds). *Career development in the 1980s: Theory and practice*, (pp. 28-42).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Super, D. E. (1951). Vocational adjustment. Occupations: *The Vocational Guidance Journal, 30*, 88-92.
- Wink, P. (1991a). Self-and object relatedness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59*, 769-791.
- Wink, P. (1991b).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원고접수일: 2015년 12월 4일

논문심사일: 2015년 12월 15일

게재결정일: 2016년 3월 3일

# The Impacts of Covert Narcissism on Career Indecision: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Jung-Moon Choi                  Nam-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current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career indecisio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Based on previous findings, this study tested the dual mediation role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between the level of covert narcissism and the level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Three hundred and eighty-nine college students (male 138, female 251) completed a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items from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 Covert Narcissism Scale (CNS),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and 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showe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career indecision. Second, covert narcissism showe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n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clarity on career indecision showed significant direct effects, respectively. Thir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career indecision.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career indecision, covert narcissism,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elf-concept clarity